지역 메아리

부안군의회 예결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부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형대)는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9일 간에 걸쳐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본 예산 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격적인 예산심사를 펼친다.

부안군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017년도 본 예산액 4,838억 원보다 9.35%가 증가한 5,291억 원이다.

지난해에 지방세수입이 10억 원, 지방교부세 228억 원, 보조금 50억 원, 보전수입 170억이 각각 증가했다.

김형대 위원장은 군민이 낸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선택과 분배의 균형 감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노약자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과 청년 일자리 확충, 민생안정 등을 위한 군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 흥덕면사회보장협의체 소외계층 방한용품 지원

고창 흥덕면사회보장협의체가 23일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나눔 활동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관협력활성화 사업비로 치매환자나 거동불편 어르신 등 세탁이 어렵고 낡은 이불을 사용하는 대상자들을 발굴해 10여 세대에 대해 겨울용 이불을 전달하면서 차가워진 겨울날씨에 대비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흥덕면사회보장협의체는 동절기인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세대에 주 1회 방문해 밑반찬을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를 행정과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흥덕면 사회보장협의체 박기용 민간위원장은 "이번 나눔 활동으로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밑반찬 지원 등 지속적인 지역복지사업을 고민하고 행정과 함께 협력 추진하여 흥덕면의 모든 주민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분주

김생기 정읍시장 국회 방문, 현안사업 증액 반영 협조 요청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김생기 시장의 잰걸음이 부쩍 분주해졌다.

최근 잇따라 국회를 방문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활동 중이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22일 현안사업 증액 반영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에 앞서 17일에도 백재현 예결위원장과 여야 예결위 간사, 예결소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 증액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시장은 당일(22일) 예결특위 김수흥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예결특위 소위원회의 활동을 상황을 알아보고, 정읍시의 현안사업이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읍 출신 이수혁 의원을 만나 ▲국립전북기상과학관 기상인 체험 교육관 시설 확충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조성 ▲한국방사선진흥원 설립 등 내년도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증액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부탁했다.

더불어 국회에서 김종진 문화재청장을 만나 ▲최치원과 정극인의 태산선비원 건립과 ▲고사부리성 성곽 보수와 정비사업 국비 보조금 증액지원 ▲태인 피향정 야외 공연 무대와 함벽루 높이기 현상 변경 허가 등의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시장이 마지막까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는 사업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조성 ▲국립전북기상과학관 기상인 체험 교육관 시설확충 사업이다.

관련해, 김시장에 따르면 그간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한 결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증액 반영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부터 지방비 매칭(50%)을 조건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었다. 하지만 김시장의 끊임없는 국가사업(국비 100%) 추진 의지와 김시장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 도내 국회의원 등 관계자 모두가 힘을 모은 결과 지지부진했던 2년 여 정부와의 줄다리기 싸움이 종지부를 찍게 될 전망이다.

김시장은 "내년도 국가예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를 갖고 예산확보 활동에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희망 2018 나눔캠페인 불씨 지펴

고창군 기해회,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기탁

갑작스레 찾아온 추위 속에 '희망 2018 나눔 성금 모금'이 시작된 고창군에 1호 기탁자가 있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고창군 기해회(회장 전상용) 회원들은 23일 고창군 주민복지실을 찾아 동절기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1959년생 동갑내기 모임인 고창군 기해회는 회원들의 회비 중 일부를 모아 매년 성금으로 기탁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나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있다.

친목모임에서 출발하였으나 함께 더불어 사는 고창군의 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해회의 기부는 고창군 나눔 문화 확산에 귀감이 되고 있다.

기해회 전상용 회장은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 친목을 나눌 뿐만 아니라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며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을 통하여 고창군민에게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전달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자랑스러운 고창인상 구현 · 지역사회발전 유공

고창군 애향운동본부, '애향특별상' 시상식 개최

23일 동리국악당에서 '제8회 애향특별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고창군 애향운동본부(본부장 조병채)가 자랑스러운 고창인상을 구현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많은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제8회 애향특별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23일 동리국악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박우정 고창군수, 고창군의회 이경신 부의장, 도의원,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과 군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8회 애향특별상' 시상식에서는 '나눔봉사부문'에 원불교 고창교당 여성봉공회가, '문화체육부문'에 주니어 배드민턴국가대표 김민지 선수가 수상했다.

원불교 고창교당 여성봉공회는 "무아봉공의 소명의식으로 지역사회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특히 경제적, 육체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모아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왔다"고 말하고 "큰 상을 받아 영광스럽고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위해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더 많은 곳에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니어 배드민턴 세계대회 네델란드, 독일에서 여자복식부문 2회연속 금메달을 수상한 김민지 선수는 수상소감으로 "특별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군민들의 사랑을 받은 만큼 고창과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선수생활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군에 각별한 애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준 수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정진해나갈 때 군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명품 고창이 만들어진다"며 "모든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고창을 자랑하면서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누구나 와서 살고 싶고, 오래 머물고 싶은 세계 최고의 자연생태도시, 한국인의 본향을 완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애향운동본부에서도 계속해서 함께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애향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애향대상은 2009년부터 제1회 이호종 전 고창군수, 제2회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현 바른정당 국회의원), 제3회 정학수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제4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학선·기보배 선수, 제5회 조종성 대한궁도협회 회장, 제6회 애향대상은 이춘희 세종시장, 지난해 재경고창군민회 국기일 상임고문이 수상한 바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박우정 고창군수, 주요사업 현장방문 추진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역 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행정 추진을 통해 꼼꼼하게 군정을 살피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23일 전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고창~내장IC 지방도 확포장 공사'와 '도계~석정 국지도 건설공사' 등 주요현안사업장 3개소를 방문해 사업장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행정을 추진했다.

'고창~내장IC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1039억원을 투입해 고창 신림면에서 정읍 내장IC까지 이어지는 지방도 708호선 13.5km의 구간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공사로, 1번 국도와의 연계를 통해 고창군과 도청 소재지로 이어지는 도내 생활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전라북도의 도로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게 된다.

사업비 총 290억원을 투입하는 '도계~석정 국지도 건설공사'는 기존 고창군 고창읍과 장성군 북일면을 연결하는 구불구불한 산길 도로를 터널로 연결해 전라남·북도의 교류와 소통이 더욱 활발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선임

정읍시의회는 23일 제22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낙삼, 이복형, 정병선, 김재오, 이도형, 박일, 우천규, 배정자 의원을 선임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정병선 의원은 완벽한 방화예방 설계에 의한 철저한 감리감독 체계 확립과 '2012년 개정된 건축물외벽 불연성 외장재 의무적 사용' 이전 16층 이상 아파트 38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보완대책, 발암물질 발생과 자연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연막소독을 친환경적이고 경비가 절약되는 연무소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도형 의원은, 조직개편안의 문제점과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활력 넘치는 정읍시청 인사 방안으로 첫째, 농정업무 부서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려는 것에 대한 문제점, 활력 있고 능동적인 조직을 위한 사무관 승진 인사의 혁신을 요구했다.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복형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재오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한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정읍=김대환기자